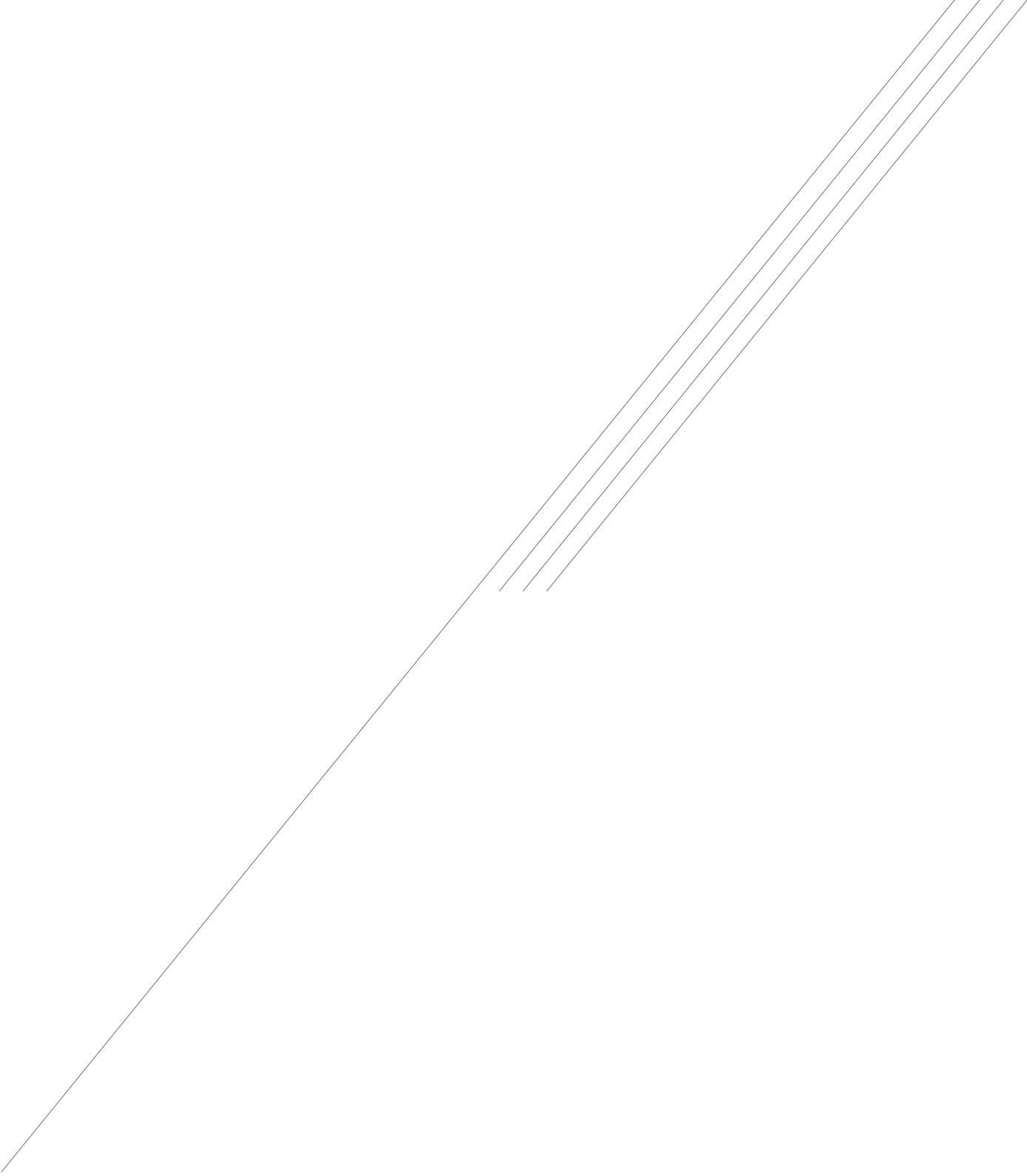


NYPI YOUTH REPORT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조사: 발달권, 참여권

Vol.23 _ 2011. 11. 25 | 모상현 부연구위원 ●



NYPI YOUTH REPORT

Vol.23 _ 2011. 11. 25 | www.nypi.re.kr

발행일 2011. 11. 25

발행인 이재연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 소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 114 교총빌딩 9/10층

전 화 2188-8800

팩 스 2188-8869

인 쇄 양동문화사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조사: 발달권, 참여권

2011. 11. 25 | 모상현 부연구위원 ●

CONTENTS

1. 어떻게 휴일을 보내는지에 대해 대부분의 남자 청소년의 경우 게임이 가장 높았으며,
여가시간의 충분성에 대해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_ 03
2. 중 · 고등학생 청소년의 고민 상담대상으로 동성친구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아버지를 고민상담 대상으로 응답한 비율은 매우 낮게 나타났음 _ 05
3. 많은 청소년들은 '자신이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선입견이 심각함을 알 수 있음 _ 07
4. 사회참여 의의와 필요성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은 높은 편이며, 참여의 장애요인으로 '정보부족'과
'사회적 편견' '시간부족', 등의 사안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 _ 09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발달권, 참여권

조사개요

○ 조사목적

- ▶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의 인권의식과 태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함

○ 조사지역 및 대상

- ▶ 전국 시/도 (제주도 제외)
- ▶ 전국의 초·중·고등학생 총 9,591명 (초등학생 2,581명, 중학생 3,189명, 고등학생 3,821명) 설문조사

○ 조사방법

-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집단 면접조사
- ▶ 조사원이 표본으로 선정된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집단면접설문조사 실시

○ 조사기간

- ▶ 2010년 6월 1일 ~ 7월 15일

* 본 조사의 설문지, 코드북, 데이터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데이터아카이브홈페이지 (<http://archive.nypi.re.kr>)에서 2012년 1월부터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1. 어떻게 휴일을 보내는지에 대해 대부분의 남자 청소년의 경우 게임이 가장 높았으며, 여가시간의 충분성에 대해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 어떻게 휴일을 보내는지에 대해 전체 중·고등학생의 25.5%가 게임하기, 19.9%는 TV시청, 친구와 놀기 13.3%로 나타남.
- 남녀 청소년 간 다른 유형의 패턴을 보여주었는데, 남자의 경우 게임에 대한 응답비율이 40.8%로 여자(9.8%)보다 매우 높았음.
- 여자청소년의 경우 T.V 시청이 28.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남자의 경우 11.5%로 관찰됨.
- 휴일을 보내는 방법 중 학업성적 상위 집단의 경우 공부라고 응답한 비율(11.6%)이 중간(7.3%) 및 하위집단(4.6%)보다 높게 나타났음.
- 휴일을 보내는 방법 중 게임의 경우 가족구성 유형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양부모(24.7%)와 한부모(29.5%)가정에 비해 조손가정(38.4%)의 청소년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1】 청소년의 휴일을 보내는 방법(중·고등학생)

(단위: %)

구분	공부	독서	TV 시청	게임 (인터넷 게임 포함)	인터넷 (정보 검색과 숙제)	친구와 놀이	음악, 회화등 취미 활동	문화, 예술 행사 관람 (영화, 음악회 등)	운동	휴대폰 으로 대화 하기	쇼핑	집에서 휴식	기타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7.5	2.6	19.9	25.5	6.2	13.3	5.6	1.4	3.2	3.0	1.1	9.2	1.5	100(6854)		
성 별	남	7.9	2.5	11.5	40.8	3.5	14.4	4.1	0.9	5.7	1.2	0.4	5.7	1.3	100(3467)	1365.437***
	여	7.1	2.7	28.4	9.8	8.9	12.2	7.2	1.9	0.6	4.8	1.9	12.7	1.7	100(3387)	
교 단	중	6.2	3.3	19.2	29.0	4.2	12.7	5.6	1.4	3.4	3.3	1.3	8.8	1.6	100(3085)	92.696***
	고	8.6	2.0	20.5	22.7	7.8	13.7	5.6	1.4	3.0	2.6	1.0	9.4	1.5	100(3740)	
학 업 성 적	하	4.6	2.3	18.9	26.1	5.7	17.3	5.8	1.3	3.2	4.1	1.2	7.9	1.7	100(2359)	152.354***
	중	7.3	2.2	21.1	25.6	6.3	11.9	5.5	1.4	3.6	2.7	0.9	9.8	1.6	100(2663)	
	상	11.6	3.4	19.3	24.8	6.6	10.2	5.6	1.4	2.6	2.1	1.4	9.7	1.3	100(1816)	
가 족 구 성	양부모	7.9	2.5	20.6	24.7	6.1	13.2	5.5	1.3	3.4	3.0	1.2	9.3	1.5	100(5809)	52.972**
	한부모	5.6	2.6	16.3	29.5	6.6	13.8	7.1	1.6	2.2	3.0	0.9	8.9	1.8	100(870)	
	조손가정	4.7	5.8	14.0	38.4	3.5	11.6	1.2	0.0	4.7	1.2	3.5	8.1	3.5	100(86)	
경 제 수 준	하	7.0	2.9	17.1	30.5	5.8	13.6	4.3	1.0	2.9	3.1	1.0	8.0	2.7	100(514)	80.163***
	중	7.1	2.5	20.6	25.3	6.4	13.2	5.7	1.4	3.0	3.0	1.0	9.3	1.4	100(5744)	
	상	12.0	3.1	15.1	23.5	4.1	12.9	5.8	1.4	5.8	3.3	2.9	8.9	1.0	100(582)	

2. 중·고등학생 청소년의 고민 상담대상으로 동성친구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아버지를 고민상담 대상으로 응답한 비율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 고민상담 대상에 대해 전체 중·고등학생 청소년의 40.2%가 동성친구라고 응답했으며, 어머니라고 응답한 비율은 20.8%, 그 뒤로 형제자매, 이성친구의 순으로 나타났다.
- 고민상담 대상을 아버지라고 응답한 비율은 3%(남자4.8%, 여자 1.1%)에 불과했음.
- 고민상담 대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13.9%에 달했음.
- 남녀 간 비교에서 여자 중·고등학생 청소년의 경우 동성친구(52.2%)로 응답한 비율이 매우 높게 관찰되었음(남자 중·고등학생 청소년은 2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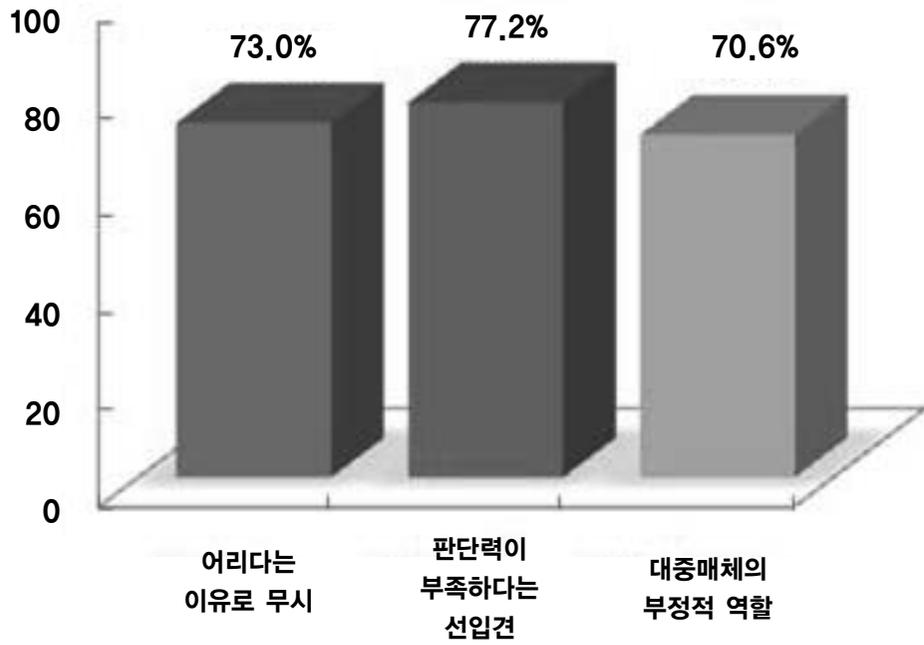
【표 2】 청소년의 고민 상담 대상(중·고등학생)

(단위: %)

구 분	아버지	어머니	동성 친구	이성 친구	선생님	상담사	형제, 자매	채팅 상대나 메일 친구	기타	상담 대상이 없음	고민이 없음	전체 (빈도)	카이제곱값	
전 체	3.0	20.8	40.2	3.5	1.3	0.6	4.5	1.0	1.5	13.9	9.6	100(6704)		
성 별	남	4.8	20.4	28.8	4.7	2.1	0.7	3.9	1.2	1.8	16.6	15.0	100(3438)	633,260*** 633,260***
	여	1.1	21.2	52.2	2.3	0.5	0.5	5.2	0.8	1.3	11.1	3.8	100(3266)	
교 급	중	3.3	23.2	35.0	2.5	1.3	0.8	4.1	1.7	1.5	14.3	12.4	100(3063)	149,986*** 149,986***
	고	2.8	18.8	44.6	4.4	1.4	0.4	4.9	0.5	1.5	13.5	7.2	100(3614)	
학 업 성 적	하	3.5	16.0	42.8	4.7	1.1	0.9	4.8	1.0	1.7	14.0	9.6	100(2313)	92,235*** 92,235*** 92,235***
	중	2.2	21.8	40.0	3.0	1.3	0.6	4.3	1.0	1.7	14.0	10.1	100(2605)	
	상	3.5	25.5	37.1	2.6	1.7	0.3	4.5	1.1	1.1	13.7	8.6	100(1775)	
가 족 구 성	양부모	2.9	21.7	40.2	3.4	1.3	0.6	4.8	1.0	1.3	13.4	9.6	100(5671)	60,148*** 60,148*** 60,148***
	한부모	3.7	17.5	39.3	4.4	1.6	0.6	2.7	1.5	2.7	16.9	9.0	100(857)	
	조손가정	4.5	6.8	40.9	4.5	1.1	1.1	5.7	0	5.7	18.2	11.4	100(88)	
경 제 수 준	하	3.0	13.9	34.9	6.5	1.4	0.8	4.4	1.2	2.2	23.6	7.9	100(495)	119,676*** 119,676*** 119,676***
	중	2.8	21.1	41.5	3.2	1.2	0.6	4.6	1.0	1.5	13.4	9.3	100(5617)	
	상	5.0	24.3	32.2	4.0	2.9	0.9	4.3	1.4	1.4	10.2	13.4	100(580)	

3. 많은 청소년들은 ‘자신이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선입견이 심각함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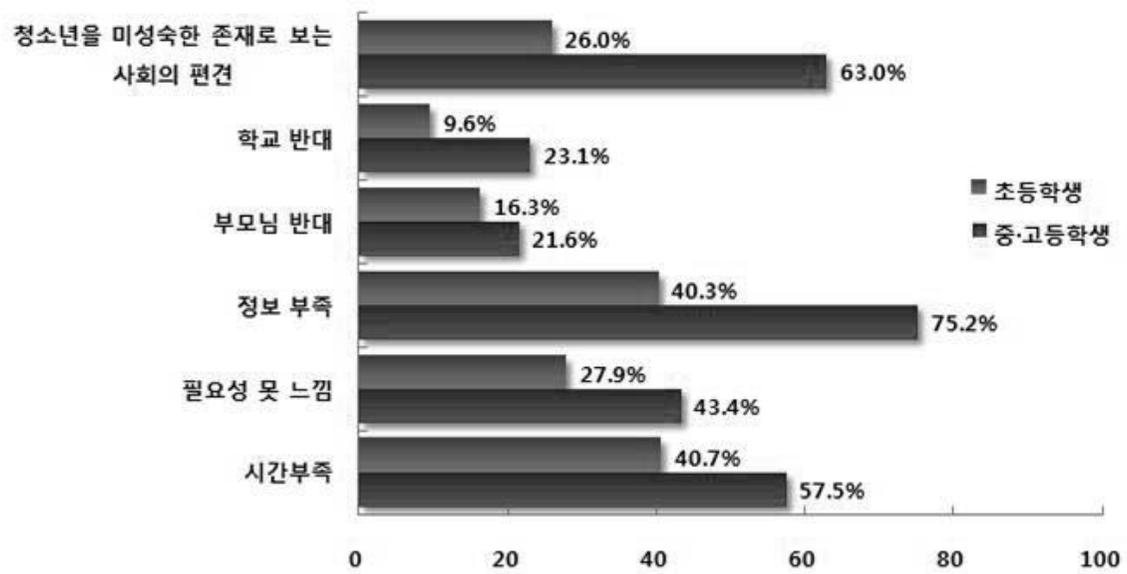
- 우리사회가 청소년을 대할 때 ‘어리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들이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중·고등학생 청소년의 73%(‘그렇다’ 53.8%, ‘매우 그렇다’ 19.2%)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편견이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중·고등학생의 경우 성별, 학교급, 학업성적,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음.
 - ▶ 여학생(78.3%)이 남학생(67.9%)보다, 고등학생(78.3%)이 중학생(66.4%)보다, 성적이 높을 수록(상 76.1%, 중 72.4%, 하 71.4%), 그리고 경제수준이 중류층일 경우(중 72.1%, 하 69.7%, 상 68.1%) ‘그렇다’(‘그렇다’,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 추가로 우리사회가 청소년을 대할 때 ‘미성숙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고정관념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중·고등학생의 77.2%(‘그렇다’ 55.2%, ‘매우 그렇다’ 22%)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음.
- 우리사회에서 ‘대중매체는 청소년을 미성숙하고 판단력이 부족하여 문제를 일으키기 쉽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포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본 결과, 중·고등학생의 70.6%(‘그렇다’ 51.2%, ‘매우 그렇다’ 19.4%)가 ‘그렇다’고 응답함. 중·고등학생에 대한 대중매체의 부정적인 표현으로 인해 그들의 역할과 발언권이 더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그림 1】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태도(중·고등학생)

4. 사회참여 의의와 필요성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은 높은 편이며, 참여의 장애 요인으로 ‘정보부족’과 ‘사회적 편견’ ‘시간부족’, 등의 사안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

- ‘정보 부족’이 사회적 참여의 장애요인이 된다는 응답한 중·고등학생의 비율은 75.2%(‘그렇다’ 58.2%, ‘매우 그렇다’ 17.0%)였으며, 여학생(80.6%)이 남학생(69.8%)보다, 고등학생(81.6%)이 중학생(67.5%)보다, 성적이 높을수록(상 78.8%, 중 76.5%, 하 70.6%), 부모님과 함께 살수록(양부모 76.0%, 한부모 72.2%, 조손가정 62.4%), 그리고 경제수준이 중류층일수록(중 75.9%, 하 74.4%, 상 67.3%) 정보 부족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음.
-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이 참여의 장애요인이라고 응답한 중·고등학생 청소년 비율은 63%였으며, 여학생(67.1%)이 남학생(59.0%)보다, 고등학생(69.2%)이 중학생(55.6%)보다, 성적이 높을수록(상 68.0%, 중 62.8%, 하 59.4%), 그리고 경제수준이 낮을수록(하 64.4%, 중 63.3%, 상 58.7%) 사회적 편견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음.
- 참여의 장애요인으로 ‘시간 부족’에 응답한 중·고등학생 청소년의 비율은 57.5%(‘그렇다’ 46.7%, ‘매우 그렇다’ 10.8%)였으며, 여학생(58.5%)이 남학생(56.5%)보다, 고등학생(61.7%)이 중학생(52.6%)보다, 성적이 높을수록(상 62.2%, 중 58.3%, 하 53.0%), 부모님과 함께 살수록(양부모 58.5%, 한부모 53.3%, 조손가정 44.1%), 그리고 경제수준이 중류층일수록(중 58.3%, 상 55.6%, 하 50.7%)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음.



【그림 2】 청소년 참여의 장애요인(중·고등학생)

2011 기본연구과제

-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연구 II
- 「창의적 체험활동」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 연구
- 청소년수련시설 인증 방안 연구
- 지역사회중심 청소년 공부방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 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아동·청소년 생활실태 분석 및 대책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통계시스템 구축 연구
-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 II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 II
-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 연구 II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II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 I
- 청소년 국제교류정책의 현황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 청소년 도덕성 발달 검사 도구 표준화 연구 I
-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I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
-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
- 한국 아동·청소년 통계데이터 아카이브 콘텐츠 구축사업 II

NYPI YOUTH REPORT 과월호 안내

- 제1호 경제위기와 빈곤
- 제2호 다문화와 탈북청소년
- 제3호 글로벌 환경 변화와 청소년
- 제4호 글로벌 인재와 청소년
- 제5호 청소년 인권
- 제6호 청소년들의 정보이용 현황
- 제7호 청소년들의 핵심역량
- 제8호 청소년들의 진로 및 직업
- 제9호 청소년들의 활동 및 문화
- 제10호 다문화 가정 및 장애아동·청소년들의 역량강화
- 제11호 멘토링과 청소년 사회 참여
- 제12호 창의적 체험 활동
- 제13호 소년원 교육 효과성 개선 방안
- 제14호 청소년 활동 지역네트워크 구축
- 제15호 청소년 인터넷 성매매 실태와 대응방안
- 제16호 위기아동·청소년 긴급구호 체계 개선방안
- 제17호 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 실태
- 제18호 방과후돌봄서비스 실태와 개선방안
- 제19호 한국 청소년 핵심역량진단 조사
- 제20호 한국 청소년 건강실태 조사
- 제21호 한국 청소년 안전(보호)실태 조사
- 제22호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발전방안

NYPI 2010 한국 아동·청소년 전국조사

- 한국 청소년 창의적 체험활동실태조사
- 한국 청소년 핵심역량진단조사
- 한국 청소년 건강실태조사
- 한국 청소년 안전(보호)실태조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 세대간 가족의식비교조사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자료집 총 10권 발간 안내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 :
외국의 창의적 체험활동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I :
1부 일본의 「종합적 학습」 가이드 “요코하마의 시간”
2부 일본의 「청소년체험활동전국포럼」 보고서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II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스포츠활동」 지도 매뉴얼
(중·고등학생용)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V :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교육 매뉴얼 : 생활권수련시설 지도자용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 :
청소년민주시민 교육 매뉴얼(중·고등학생용)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 :
학교기반 지도매뉴얼 I : 핵심역량-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I :
학교기반 지도매뉴얼 II : 핵심역량-교과(지리)수업연계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II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 : 핵심역량-사교력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X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I : 핵심역량-사회성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X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II : 핵심역량-자율적 행동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 받는 저작물이므로 이 책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용하려면 출처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합니다.

〈비매품〉

본 책자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nypi.re.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